

# 잉즈의 베이징 노스탤지어 서사에 관한 고찰\*

– 린하이인(林海音) 소설집과 우이궁(吳貽弓) 동명 영화  
『베이징 남쪽의 옛 이야기(城南舊事)』를 중심으로

김수진  
(성신여자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여성작가 린하이인(林海音: 1918-2001)은 부모가 타이완 태생으로 그 자신은 일본에서 출생하여 1923년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와 베이징 城南에 거주하다가 1948년 남편과 자녀들, 어머니와 다시 타이완으로 돌아가게 된다. 어린 소녀에서 한 남자의 아내, 어머니로서 베이징에서 산 25년간의 세월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았고, 타이완으로 돌아온 후에도 베이징에서의 삶이 녹아있는 일련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그녀가 창작한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은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린하이인의 베이징 상상과 노스탤지어를 읽어낼 수 있다.<sup>1)</sup> 그녀는 京味작가 대부분이 남성작가인 상황에서 그들과는 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린하이인은 北京城南廠甸小學, 北京女子師範學校, 北京新聞專科學校를 졸업한 후에 『世界日報』 기자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北京師範大學을 졸업한 신문사 동료인 夏承楹과 결혼하였다. 1948년 남편과 세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타이완으로 돌아와 『國語日報』 편집을 담당하고 1951년 『聯合報』 副刊을 주편하였으며 『文星』 잡지 편집과 世界新聞學校 교원을 겸직하였다.(莊明萱, 『林海音的文學創作』, 舒乙, 傅光明 主編, 『林海音研究論文集』, 北京: 臺海出版社, 2001, 184쪽 참고)

른, 자신만의 독특한 京味 경향의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문학적 기억은 역사적 기억과 달리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 입력한 것을 되풀이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그대로 되풀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문학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상실감을 보충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 그러므로 문학적 기억은 근원적으로 ‘事後性(Nachträglichkeit)’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프로이트가 사용한 이 말은, 회상을 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sup>2)</sup>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베이징 공간을 무대로 한 기억과 상상은 타이완에 거주하고 있는 린하이인에게는 상실된 현재를 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 기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관한 글쓰기를 통하여 보상과 치유라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문학 속에서 기억하는 베이징 지역 중에서도 ‘城南’ 곧 ‘베이징성 남쪽’ 지역에 관한 기억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옛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만의 색깔로 덧입혀져 있는 것이다.

린하이인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 특히 1960년에 발표한 『베이징 남쪽의 옛 이야기(城南舊事)』는 20년대 중국 베이징성 남쪽을 배경으로 한 총 다섯 편의 단편소설<sup>3)</sup>으로 구성된 단편소설집이다. 이 단편소설집은 각각의 이야기가 독립적인 내용이면서도 인물과 내용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서로 연결되는 움니버스식 구성으로도 볼 수 있는 작품집이다. 이 작품은 1983년 우이궁(吳貽弓) 감독에 의해 『베이징 남쪽의 옛 이야기(城南舊事)』라는 동명의 제목으로 영화화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sup>4)</sup>

2)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48쪽.

3) 『城南舊事』에 실린 작품은 「惠安館傳奇」, 「我們看海去」, 「蘭姨娘」, 「驢打滾兒」, 「爸爸的花兒落了 我也不再是小孩子」이다.

4) 『城南舊事』는 매년 꾸준히 출판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2014년 올 한 해 동안 출판된 책만을 살펴보면, 沈繼光이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은 中國青年出版社版(2014. 8. 1), 마찬가지로 沈繼光 촬영 사진이 실린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版(2014. 3. 1), 眉睫가 編著한 上海人民美術出版社版(2014. 6. 1), 吉林美術出版社版(2014.

본고에서는 린하이인의 단편소설집 『베이징 남쪽의 옛 이야기(城南舊事)』와 우이궁 감독의 영화 『베이징 남쪽의 옛 이야기(城南舊事)』 속에 담겨진 베이징 상상과 노스텔지어를 차례로 고찰해 봄으로써 각각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京味적 특징과 당시 1920년대 ‘城南’ 기억의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 II. 낙타의 방울소리를 따라

### - 린하이인 소설집 『베이징 남쪽의 옛 이야기(城南舊事)』

여름이 가고, 가을도 가고, 다시 겨울이 돌아왔다. 낙타도 다시 왔다. 하지만 한 번 가 버린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서 천천히 글을 써내려 간다. 겨울 햇살 아래 낙타 대열이 보이고, 서서히 듣기 좋은 방울소리가 들리면서, 어린 시절이 내 마음 속으로 다시 돌아온다.<sup>5)</sup>

낙타<sup>6)</sup>의 되새김질을 따라하던 어린 잉즈(英子)<sup>7)</sup>는 이제 성인 린하이인으

6. 1), 華東師範大學出版社版(2014. 4. 1), 河北少年兒童出版社版(2014. 3. 1), 湖北科學技術出版社版(2014. 8. 1), 李觀政 主編의 北京師範大學出版社版(2014. 8. 1), 萬卷出版公司版(2014. 6. 1), 北京工業大學出版社版(2014. 7. 1), 北方婦女兒出版社版(2014. 10. 1), 巴蜀書社版(2014. 8. 1), 長江文藝出版社版(2014. 9. 1), 譯林出版社版(2014. 5. 1) 등이 출판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5) 夏天過去, 秋天過去, 冬天又來了, 駱駝隊又來了, 但是童年却一去不還, …… 我默默地想, 慢慢地寫. 看見冬陽下的駱駝隊走過來, 聽見緩緩悅耳的鈴聲, 童年重臨於我的心頭(林海音, 「冬陽·童年·駱駝隊(後記)」, 『城南舊事』,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8, 180- 181쪽)

6) 『城南舊事』의 후기인 「冬陽·童年·駱駝隊」에서 낙타를 끌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낙타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여 베이징 사람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멀리 門頭溝에서 北京城으로 석탄을 들여왔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낙타라는 동물은 소나 말보다 더 오래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이었다. 그래서 특히 당시의 겨울철 베이징성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운송도구였다. 이러한 민속은 라오서(老舍)의 소설 『駱駝祥子』에도 기록되어 있다. 추운 겨울 베이징성을 지나는 낙타는 독특한 풍경을 형성하였고 베이징 민속의 전형이 되었으며 린하이인을 포함한

로 성장하여 베이징성 남쪽에서 보낸 기억을 반추하는 의미에서 『城南舊事』를 쓰게 된다. ‘城南’은 바로 지금의 베이징 琉璃窓 일대로 주요 문물집산지역기에 베이징성<sup>8)</sup>에서 가장 오래된 풍속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sup>9)</sup>

다섯 살 때 온 집안이 베이징으로 옮겨오면서 린하이인은 ‘城南’에서 1948년 가족들과 타이완으로 가기 전까지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녀는 小學부터 대학시절까지를 여기서 보냈으며 부친의 사망 후에 타이완으로 돌아오라는 조부모에게 ‘城南’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편지를 직접 쓰기도 하였고 결혼과 육아, 직장 생활을 하며 보낸 이곳에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이 깃들여 있었다.<sup>10)</sup> 그래서, 린하이인에게 있어서 베이징 상상은 곧 ‘城南’ 상상을 의미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린하이인이 실제 살았던 城南 지역의 椿樹후통, 新簾子후통, 虎坊橋, 梁家園 등은 『城南舊事』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소설 『城南舊事』의 주인공은 실제로는 잉즈도 그 어떠한 인물도 아닌 바로 ‘城南’ 공간 그 자체이다. 동심어린 시선으로 그려내는 ‘城南’ 공간 속 사람들의 삶은 어느 것이 진실이고 또 어느 것이 허구인지 가려내기 어렵게 교

여 소설가들이 즐겨 묘사하는 대상이 되었다.(畢靜枝, 「論『城南舊事』的民俗學價值」, 『作家雜誌』, 2012. No1, 22쪽) 200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포스터 역시 베이징성을 배경으로 한 낙타 그림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7) 린하이인의 원명이자 소설집 『城南舊事』 속의 어린 여주인공의 이름은 모두 ‘英子’이다.
- 8) 1930년(민국 19년) 베이징(北京)은 베이핑(北平)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북벌이 완성되어 난징(南京)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베이징은 역대 皇都로서의 오랜 역할을 마감하였다. 그 당시 사회 전체가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夏祖麗, 『從城南走來-林海音傳』,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3, 35쪽)
- 9) 역사적으로 北京 城南은 매우 특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청조가 ‘滿漢分治’의 민족정책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滿洲族 八旗가 內城을 점거하고 지위가 낮은 漢人들은 外城에 거주할 수 있었는데 바로 宣武門, 前門, 琉璃窓 일대로, 이른바 ‘城南’은 초기에도 이 지역을 가리킨다. 베이징에 들어와 과거시험을 보는 漢族 선비들이 점차 城南에 모였고 이 지역은 점점 민속 문화, 이들 선비 문화를 대표로 하는 평민문화를 형성하였다. 다시 말해서, ‘內城’의 귀족문화와는 상대적인 베이징 하층문화를 형성하였던 것이다.(李珣陽, 「“老北京”與“新城南”: 京腔京韻再敘城南“新”事」, 2010年 第12期, 30쪽)
- 10) 舒乙, 「熱的書·熱的人」, 舒乙, 傅光明 主編, 앞의 책, 166쪽 참고.

묘하게 얽혀져 있다. 베이징 남쪽의 후통 구석구석에 아로새겨져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 공간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다. 린하이인의 시부이자 작가인 샤런후(夏仁虎) 역시 베이징 서사를 내용으로 하는 『舊京瑣記』를 썼는데 그의 저작에서의 베이징은 舊‘京’이자 帝都이며 國族 상상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린하이인의 작품 속에서의 그것은 ‘城’南이고, 도시이며 일상 생활과 도시민의 삶과 취미와 연관<sup>11)</sup>이 있는 것이다.

『城南舊事』에서 지리공간은 소설 플롯 전개를 추동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宣外驛馬市거리에서 시작해서 魏染후통, 西草廠을 지나면 椿樹후통 우물가에 이르게 되면 우물가 대각선 방향 맞은편이 바로 그녀가 살던 후통이다. 『城南舊事』에서는 회관이 주요 배경으로 ‘惠安館’이 자주 등장하는데 주요 인물인 ‘미친 아가씨’ 슈전(秀貞)이 이 회관 안에서 살고 회관 부근 우물가에는 그녀의 버려진 딸 ‘뉴얼(妞兒)’이 사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sup>12)</sup>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惠安館傳奇」는 惠安會館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미친 여인 슈전의 이야기를 따라 전개된다. 그녀는 회관에 기거하던 베이징대 대학생과 서로 사랑에 빠져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지만 결국 버림받는 상황에 처한다. 슈전은 우여곡절 끝에 잉즈의 도움으로 상봉하게 된 딸 뉴얼과 기차를 타고 떠나려 하지만 결국 모녀는 기차 바퀴에 깔려 목숨을 잃는다. 잉즈의 부모는 어린 잉즈가 이 비극적인 기억을 잊도록 하기 위해 新簾子후통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래서 제2장 「我們看海去」의 첫머리에는 新簾子후통의 형태를 묘사하는 부분이 나온다. 후통 끝 쪽 버려진 황폐한 풀밭에서 어린 잉즈는 소설의 두 번째 주인공인 풀숲에 장물을 숨겨두는 도둑을 만나면서 그와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제3장 「蘭姨娘」에서는 잉즈 일가는 다시 虎坊橋<sup>13)</sup>로 이사를 가고 첫머리에 ‘나’와 여동생

11) 林暉, 「從『舊京瑣記』到『城南舊事』-兩代“遺/移民”的北京敘事」,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12年 第1期, 122쪽 참고.

12) 張光正, 「老北京的“番薯仔”-林海音青少年時代的人和事」, 舒乙, 傅光明 主編, 앞의 책, 64쪽.

13) 虎坊橋는 잉즈가 성장기에 가장 잊기 힘든 장소이다. 그녀의 가족들이 살았던 이곳은 가장 변화한 지역으로 통하는 거리로 前門, 城南游藝院, 八大후통, 天橋, 장례행렬 등이 모두 이곳을 거쳐 가야 했다.(夏祖麗, 『從城南走來-林海音傳』,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3, 34쪽 참고)

이 虎坊橋 거리에 서서 사형수의 행렬을 지켜보기도 하며 말미에 잉즈 일가는 바로 이 虎坊橋에서 베이징대 대학생 더셴(德仙) 아저씨와 함께 떠나는 란이닝(蘭姨娘)을 배웅한다. 이처럼 지리적 공간은 『城南舊事』에서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서사구조의 중심인 것이다. 이외에도 『城南舊事』에는 옛 베이징의 지명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齊化門, 興華門, 合德門, 兵部注, 西交民巷, 東交民巷, 椿樹후통, 絨線후통 등<sup>14)</sup>이며 장소의 이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플롯이 전개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베이징의 지리적 공간을 중시하는 린하이인의 창작 경향은 소설집 『城南舊事』뿐만이 아니라 베이징을 추억하거나 베이징 실제 지명을 제목으로 한 京味적 특색을 띤 산문에서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저녁 내내 우리는 지도 한 장에 의지해 베이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님이 간 후 가족들은 잠들었고 나는 다시 홀로 지도를 펼치고서 모든 거리, 모든 후통을 자세히 바라보았는데 추억은 상세한 세월을 기억해낼 수 없었다. 늘 작은 후통 하나에서 서로 상관없는 감촉 하나에서 생각을 어린 시절로 끌어가, 내가 살던 집, 내 작은 침대, 내 장난감과 동무를 떠올렸다. …… 하나하나 이야기는 관련이 없었고 세월도 연결되지 않았는데 생각은 이렇게 기묘한 것이다.<sup>15)</sup>

위의 글을 통해서도, 고향과 같은 베이징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린하이인에게 있어서 베이징 상상과 노스텔지어는 지리적 공간의 이미지가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 하는 지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한 『城南舊事』를 통하여 작가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근거로 어린 시절 베이징에서의 생활을 독자들에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꺼내 보이고 있다. 2,30년대 베이징에 대한 짙은 노스텔지어 속에서 함께

14) 林曄, 앞의 글, 128쪽 참고.

15) 整個晚上, 我們憑着一張地圖都在說北平. 客人走后, 家人睡了, 我又獨自展開了地圖, 細細地看着每條街, 每條胡同, 回憶是無法記出詳細歲月的, 常常會由一條小胡同, 一個不相干的感觸, 把思路牽回到自己的童年, 想起我的住室, 我的小床, 我的玩具和伴侶, …… 一環跟着一環, 故事既無關係, 年月也不銜接, 思想就是這麼個奇妙的東西.(林海音, 「一張地圖」, 『兩地』, 北京: 北京出版社, 1988년, 28쪽)

읽혀지는, 당시 크고 작은 후통에서 부대끼며 사는 중하층 여인의 불행한 처지와 비극적인 운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향수와 함께 애절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안겨주고 있다.

린하이인의 베이징 서사는 라오서 작품 속의 京味 서사와도 다르며 왕칭치(汪曾祺)의 후통의 소설로 인한 슬픔의 역사문화 심리학과 구별된다. 그녀는 어린아이의 순진문구한 눈으로 베이징의 인정과 풍물을 대하였고 여성의 시선으로 옛 베이징 가정에서의 여성들의 삶의 형태와 운명을 글로 풀어냈다.<sup>16)</sup> 또한 京味 문화 노스텔지어를 표현했으며 날카로운 사회비판적 시각보다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그 옛날 베이징에서의 생활에 대한 아름답고도 소박한 추억을 묘사함으로써 京味문학의 범위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린하이인은 민난어(閩南話)를 잘 하지만 그녀는 가정에서든 사교 장소에서든 순수 토박이의 베이징어(北京話)를 하는데 아주 아름답다. 언어란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베이징어와 40여 년 전의 베이징어는 이미 크게 달라져서 신조어가 많이 늘었고 많은 옛 단어들도 태워졌다. 하지만 린하이인의 베이징어는 4,50여년 전의 베이징어로 4,50년 전 베이징어의 살아있는 표본이다! 듣노라면 재미있고 늘 경탄하게 만든다.<sup>17)</sup>

린하이인은 어린 나이에 처음 베이징에 와서는 일본어, 客家語, 閩南語, 北京話를 뒤섞어서 의사 표현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금새 순정한 베이징어만 남게 되었다. 그녀는 이후 어디서나 생생한 京腔의 순토박이 베이징어로만 의사소통을 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언어 습관은 자연스럽게

16) 郝海洪, 「林海音“京味”敘事策略」, 『文化研究』, 2006. 8, 171쪽 참고.

17) 林先生會說閩南話, 可是, 她不論是在家裏, 還是在社交場合, 都講一口特別地道的北京話, 漂亮極了。語言, 這東西, 是隨着時代而變化的, 今天的北京話和四十多年前的北京話已經大不相同了, 多了好多新名詞, 還淘汰了許多老詞。可是, 林海音先生的北京話是四五十年前的北京話, 整個一個四五十年前的北京話的活標本! 聽起來又好玩又常常令人驚歎。(舒乙, 「受人尊敬和討人喜歡的林海音」, 54쪽)

18) 林海音, 『在胡同裏長大』,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11, 41쪽 참고.

게 베이징어를 그녀의 소설과 산문들 속으로 가져갔고<sup>19)</sup> 소설 속 어린 잉즈의 일상 언어에는 베이징 구어의 兒化음의 사용, 예를 들면 ‘自個兒’, ‘模樣兒’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20)</sup> 이러한 언어적 풍격을 통해 옛 베이징의 지역적 특색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이다. 京味는 그래서 린하이인 작품의 중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녀의 작품 『城南舊事』는 京味の 대표작인 것이다.

린하이인의 소설은 일반적인 ‘京味’소설의 특징이기도 한 담담한 유머기질을 지니고 있다. 이점 역시 수이(舒乙)는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린선생의 작품은 유머의 기질을 띠고 있다. 유머가 전부 기교인 것은 아니며 또한 웃기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우선 일종의 기질이다. 그녀의 마음은 ‘뜨겁고’, 그녀는 (그것을) 서둘러 없애지 않는다. 동정하고 연민하고 가련해하며 또한 가련함의 요소가 때로는 미움보다 크고 미래에 대해 희망에 기대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유머로 비극을 쓰는데도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sup>21)</sup>

베이징 작가 티에닝(鐵凝) 역시 『城南舊事』의 서술 언어가 질박하고 간결하며 따뜻한 유머가 느껴지는 감동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섬세하고 맑으며 진실되고 뜨거운 필치가 모두 가능한 작가이지만 무엇보다도 유머가 가장 뛰어난 점 때문에 작가가 자신이 린하이인을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sup>22)</sup>

마선(馬森)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대표적인 京味작가 라오서는 베이징의 거리와 후통,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높은 지위의 관리, 하층민, 교사, 학생 등의 인물유형을 두루 다 썼지만 린하이인이 본 것은 보지 못했고

19) 『北京土語辭典』에 실린 「北平歇后語辭典序」에서 린하이인은 베이징의 ‘京味’어에 대해 숙련된 자신감과 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바 있다. 타이완에 돌아와서도 ‘京味’에 대한 열정 역시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郝海洪, 앞의 글, 171쪽 참고)

20) 任蘭平, 「林海音與老舍之“京味兒”比較」, 『湖南工業職業技術學院學報』第6卷 4期, 2006年 12月, 99쪽

21) 林先生的作品有幽默的氣質. 幽默不完全是技巧, 也不等同於逗樂, 它首先是一種氣質. 她的心是“熱”的, 她不趕盡殺絕, 她有同情, 有憐憫, 有可憐, 而且可憐的成分往往大於恨, 寄希望於未來, 所以她能用幽默寫悲劇, 一點兒都不矛盾.(舒乙, 「熱的書·熱的人」, 173쪽)

22) 夏祖麗, 앞의 책, 220쪽.

린하이인이 쓴 것은 쓰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린하이인은 어린 소녀의 시각으로 베이징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시각과 견해, 그리고 감정은 성인인 라오서와는 달랐다고 볼 수 있다. 라오서의 베이징 관련 소설이 사회성, 비평성과 분석력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린하이인의 『城南舊事』의 경우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이며 종합적<sup>23)</sup>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담담한 애수, 깊은 그리움

#### - 우이궁 영화 『베이징 남쪽의 옛 이야기(城南舊事)』

영화 『城南舊事』는 1982년 베이징이 아닌 上海電影製片廠에서 촬영되었으며, 이밍(伊明)이 린하이인의 동명소설 『城南舊事』를 개편하였고 저명한 감독 우이궁(吳貽弓)이 메가폰을 잡았다. 당시 영화 『城南舊事』는 상영되자마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국제적으로는 당시 싱가포르 마닐라 국제영화제, 독일 아동영화제, 에콰도르 영화제에서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중국내에서는 중국영화金鷄상, 최우수 음악작곡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여우조연상 등을 수상하며 비평가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담담한 애수, 깊은 그리움(淡淡的哀愁, 沉沉的相思)’

영화 『城南舊事』의 감독 우이궁은 위와 같이 여덟 글자로 영화 전체를 흐르는 분위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총결한 바 있는데, 그는 대부분의 영화가 관객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고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에 클라이맥스를 삽입하는 드라마틱한 서사구조를 배제하고 이처럼 ‘담담한 애수, 깊은 그리움’을 기조로 예술성과 여운이 풍부한 영화를 완성하였다.

소설집 『城南舊事』가 타이완에서 처음 출간되자 특히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건너간 옛 베이징인들에게 떠나온 땅 베이징에 대한 강렬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켰다. 이들 뿐 아니라 타이완 본지인들에게도 대륙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큰 반향을 일으켰다.

뒤이어 대륙에서도 80년대 개혁개방정책 이후로 中國社會科學院 文學研

23) 夏祖麗, 앞의 책, 218쪽 참고.

究所에서는 타이완 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선택적으로 들여오기 시작했는데 『城南舊事』는 그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었던 이 작품을 北京電影製廠의 극작가 이밍이 읽은 후 영화 제작을 하고 싶은 소재 거리임을 직감하고는 즉시 영화 시나리오로 개편작업을 시작하였다. 원래는 北影廠에서 영화를 촬영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우이궁은 린하이인의 작품 속 옛 베이징 장소를 찾기 위해 손에 베이징 지도를 들고 사람들을 대동하고 온 종일 베이징 후통을 이리저리 다녔었다. 베이징 남쪽에서부터 베이징 북쪽 지역까지 두루 다녀본 결과, 옛 베이징의 풍모가 남겨진 곳이 몇 군데 남아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아스팔트가 깔리고 높다란 전봇대가 세워진 주변 풍경이 옛 베이징의 상징적인 풍모와 정취를 없애버리고 있었다. 결국 上海電影製片廠에 ‘옛 베이징’으로 불리어지는 풍경을 재현하게 되었으며 막 지은 새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낡은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등 오랜 인내와 노력 끝에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화 속 오래된 우물, 후통 사이를 편안하게 지나는 낙타 떼들은 옛 베이징의 숨결을 드러냈으며 영화 속 옛 베이징 민가는 보호 대상인 상징적인 四合院이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뜰과 비슷한 모습이였다.<sup>24)</sup>

영화는 카메라가 스산한 바람이 부는 마른 나무들이 들어선 산 풍경을 시작으로 만리장성, 낙타 떼를 차례로 보여주며 차분한 중년 여성의 내레이션으로 서두를 연다.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도 잊기 어렵구나. 반세기가 넘게 지나버렸는데도 베이징성 남쪽에서 살았던 풍경과 인물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이제는 아마도 예전의 것들은 사라져버렸겠지. 하지만, 세월이 헛겨나가면서 나로서는 멀리 방랑자의 심정이 나날이 뚜렷해졌다. 내가 겪어낸 큰일들도 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 시간에 의해 마모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의 소소한 일들은 시름하든지 달든지 쓰든지 맵든지 간에 영원히 영원히 내 마음에 각인되어 버렸다. 어린 시절이란 건 다들 이렇게 어리석고

24) 袁成亮, 「電影『城南舊事』背後鮮爲人知的故事」, 『党史博採』, 2009年 6月, 44-45 쪽 참고; 張祖群, 祖文靜, 「鄉土北京: 『城南舊事』的老北京影像」, 『青島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30卷 第1期, 2014年 3月, 91쪽 참고.

기쁘면서도 신성하지 않은가?<sup>25)</sup>

영화 『城南舊事』의 개편은 바로 원작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영화의 표현 방식에 따라 새로운 재창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즈루(張之路)는 「中國小說兒童電影史論」에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영화를 자전영화 혹은 성장영화라고 부르는데, 중국 대륙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화는 바로 이 1982년의 영화 『城南舊事』를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 『城南舊事』는 영화의 제재, 주제, 연기, 촬영, 음악 방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모두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인 어린 잉즈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모두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소설에서 슈전이 자신이 사랑한 스강(思康)에 대해 추억하는 장면이나 송마(宋媽)의 어린 완즈(小栓子)나 딸에 대한 추억 등의 부분은 영화에서 모두 삭제되었다.<sup>26)</sup>

우이공은 『閃光的彩球』라는 영화의 아역배우 선발 장소에 들러 자신의 영화에 출연시킬 아역배우를 물색하던 중 두 명의 아역 배우 가운데 선제(沈潔)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훗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선제는 매우 강렬하게 표현하려는 그런 욕망이 없었고 다소 우울해보였지요. 하지만 나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탐색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안에서 누가 가장 나이가 많고 누구 말이 가장 유용한지 누가 감독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호기심 많은 의문부호식 시선은 내가 설정한 어린 잉즈에 대한 요구사항과 아주 잘 맞아떨어졌어요.”<sup>27)</sup>

25) 不思量, 自難忘, 半個多世紀過去了. 我是多麼想念住在北京城南的那些景色和人物啊, 而今或許物異人非了. 可是, 隨着歲月的蕩漾, 在我, 一個遠方游子的心頭却日漸清晰起來. 我所經歷的大事也不算少了, 可都被時間磨蝕了. 然而, 這些童年的瑣事, 無論是酸的, 甜的, 苦的, 辣的, 却永久永久地刻印在我的心頭. 每個人的童年不都是這樣的愚欣而神聖嗎?(영화 『城南舊事』)

26) 彭笑遠, 『『城南舊事』: 從小說到電影的“同”與“異”』, 『北京教育學院學報』第2卷第4期, 2010年 8月, 38-39쪽 참고; 李顯傑, 「電影敘事學-理論和實例」, 北京: 中國電影出版社 재인용.

27) 沈潔她沒有那種非常強烈的表現慾望, 有些憂鬱. 但是我感覺她在心裏面探索, 她琢磨在這裏面誰最大, 誰說話最有用, 誰是導演. 她那種求知的問號式的眼光與我

우이궁 감독은 선제에게 ‘역지로 연기할 필요 없단다. 너 자신이 어린 잉즈니까’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영화 『城南舊事』의 여주인공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다.

영화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인공 어린 잉즈의 시각으로 전개되었다. 잉즈를 잡은 카메라 렌즈는 전부 비교적 낮은 각도에서 촬영되었는데 즉, 기본적으로 잉즈의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전부 스크린에 옮겨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화 『城南舊事』는 ‘어백’의 미를 잘 운용한 작품으로 허구와 실제, 靜과 動, 그리고 情과 景이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진 영화이다.<sup>28)</sup>

소설집 『城南舊事』와 원작을 개편한 영화 『城南舊事』는 1인칭 시점의 서술 시각이 동일하고 서술 구조가 비슷하며 두 작품이 띠고 있는 서정성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점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의 삭제와 인물 배치의 변화, 인물 심리와 성격묘사상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영화 『城南舊事』에서는 소설에서의 「蘭姨娘」이 아예 삭제되어 등장하지 않으며 원작에서 가족들로 인해 떠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뉴얼의 아버지이자 슈전의 사랑하는 연인 스강은 영화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슈전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 점이 가장 차별화된 부분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들은 원작 속의 원 인물들에 비해 더욱 단순해지고 이상화된 인물들로 재창조되었다. 원작의 인물들은 대부분 복합적인 성격과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잉즈의 아버지의 경우는 일본에서는 기루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베이징에서는 아편을 피우기도 하였으며 잉즈의 모친이 가슴 앓이를 할 만큼 란이낭과의 사이에서 애매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들 인물들의 입체적이고도 복잡한 특징들을 삭제하였고 인물들의 성격은 대체로 단조로워졌다. 영화에서의 잉즈의 아버지는 원작에서의 다소 불성실하고 잉즈의 교육에 엄격하였던 이미지를 탈피하여 완벽하리만치 자상한 아버지의 이미지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또한, 그는 잉즈의 어머니와도 좋은 금슬을 보여줌으로써 원만하고 행복한 전

設想的小英子的需求非常吻合.(袁成亮, 앞의 글, 45쪽)

28) 張祖群, 祖文靜, 앞의 글, 89쪽.

형에 가까운 가정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실제 현실의 추악한 일면은 모두 숨겨지고 희석시켰으며 밝고 아름다운 것들은 최대한 확대하여 표현하였다.<sup>29)</sup>

원작 『城南舊事』를 통해서도 대체로 거의 토박이 베이징어를 접할 수 있지만 소설의 서두에서는 몇 마디 客家語와 閩南語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타이완 출신의 배경을 전달하고 있다. 잉즈네 집의 보모이자 가정부인 송마(宋媽)는 順義縣 출신으로 ‘惠安館’을 ‘惠難館’이라고 말하고 잉즈의 어머니는 ‘灰娃館’이라고 하고 아버지는 ‘飛安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소설에서 이들의 출신 배경을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반면 영화 속 인물들은 전부 생생한 베이징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sup>30)</sup> 이 영화의 특색을 살려주는 점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영화의 전체 내용은 20년대 초 여섯 살의 어린 아가씨 ‘나’인 린잉즈가 가족과 함께 베이징성 남쪽의 작은 후통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낡자마자 그녀의 부모에 의해 버려진 친딸을 찾아 늘상 후통 입구에서 멍하니 서있는 미친 여인 슈전은 잉즈의 첫 번째 친구가 된다. 소설에서 슈전과 뉴얼 모녀는 비오는 밤 기차 바퀴에 참사를 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영화에서는 슈전 모녀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슈전 모녀가 떠나는 그날 밤 잉즈는 비를 흠뻑 맞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녀의 기억을 지워내려는 부모님의 결정으로 잉즈 일가는 新簾子 후통으로 이사를 간다. ‘미친 여인 슈전 이야기’에 이어지는 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줌도둑질을 하는 순박한 도둑과의 우정을 그린 ‘도둑 이야기’, 마지막으로 가난으로 인한 비극적 삶을 사는 하층민 여성 ‘송마의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이 세 이야기는 서로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그럼에도 극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영화는 주인공 잉즈의 심리에 포커스를 맞추어 전개되며 화면과 소리를 통한 시청각적 표현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통적 수묵화 와 같은 조용하고도 담백한 풍경과 이미지를 창조해냈으며 이러한 산문체의 서술은 플롯의 기복을 만들지 않고 베이징 장터풍경과 아이들의 피구놀이 등 소소한 일상이 어우러진 평범한 삶의 담담한 서정성을 표현해냈다.<sup>31)</sup> 영화에

29) 張祖群, 祖文靜, 앞의 글, 90쪽 참고.

30) 高雪, 「淺析『城南舊事』小說與電影的文本區別」, 『戲劇之家』, 2011年 3月, 64쪽.

서 잉즈는 특히 승마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 그리고 연민의 감정을 보여준다.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집안일과 아이들 보모 노릇을 하여 번 돈을 고스란히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내주며 살아가는 승마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잉즈를 그녀를 위해 대신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기도 한다. 남의 자식을 돌보는 동안 정작 자신의 친아들 환즈(小栓子)가 죽었다는 소식과 딸은 남의 집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에 승마는 큰 충격을 받는다. 부뚜막 앞에서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오랜 고민 끝에 승마는 결국 정든 잉즈 일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소설이 부친과의 영원한 이별로 끝을 맺는 반면, 영화에서는 중반부에 실린 이 작품의 내용이 마지막을 장식할 만큼 비중 있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병을 앓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잉즈 부친의 무덤 앞에서 승마는 나귀를 타고 남편과 함께 떠나며 영원한 작별을 하고 잉즈 일가는 마차를 타고 멀리 떠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떠나는 승마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잉즈의 동그랗고 까만 눈에서 카메라는 이동하여, 영화의 서두와 수미쌍관적 구성을 이루며 다시 마른 나무들로 덮인 산 풍경과 ‘송별’의 노래로 ‘劇終’을 알린다.

당시 시단의 주요 흐름은 朦朧詩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소설은 의식의 흐름과 詩化 소설 경향이 유행하였으며 영화계에서는 『城南舊事』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비굴거리화’의 영화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 영화 『城南舊事』의 산문화 이미지는 산문화 소설인 원작의 이미지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 현대소설사에서 이러한 산문화된 서정 풍격의 소설은 루쉰(魯迅)의 『고향(故鄉)』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후 폐이밍(廢名), 셴충원(沈從文), 샤오홍(蕭紅), 왕청치(汪曾祺) 등이 이어서 창작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의 소설은 50-70년대에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왕청치는 산문화 소설의 공통된 문화 특징으로 ‘추억’을 꼽고 있다.<sup>32)</sup> ‘보상 이론에서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는 방향으로 상상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기억’<sup>33)</sup> 즉 지나간 것에 대한 추억인 것이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글쓰기작업

31) 彭笑遠, 앞의 글, 39-40쪽 참고.

32) 陳陽春, 앞의 글, 15쪽.

33) 변학수, 앞의 책, 156쪽.

을 통하여 베이징에서의 추억을 그려낸 『城南舊事』는 시간적 거리 속에서 작가와 감독의 주관에 따라 각기 다른 독특한 베이징 상상을 보여주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나오며

베이징은 ‘京’이자 ‘城’인 특수한 성격의 도시로 베이징에서 베이핑으로 다시 베이징으로의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변신을 해왔다. 수도의 역할을 하지 않은 시기에도 베이징은 문화적 측면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베이징의 문화적 정취가 가득한 작품 창작으로 유명한 京味문학의 대가 라오서(老舍)는 작품 속에서 베이징 문화를 滿洲族 旗人문화 전통의 연장선 상에서 예의와 규범 예술문화와 여유 있고 낙관적인 삶의 양식 등을 그리면서 아울러 현실 비판적 시각도 드러내보였다고 개괄할 수 있을 것이다. 린하이인 문학의 경우는, 옛 베이징 지역 가운데 남쪽지역 즉 ‘城南’을 중심으로 20년대 실제 경험한 평범한 후통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조용하고 순박한 인심과 인정미를 주로 그려냈다. 베이징 노스텔지어와 함께 아련한 기억들은 날카로운 비판의 시각보다는 그녀의 베이징 상상을 행복한 포장을 한 겹 입힌 다소 은폐된 재창조된 기억들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심지어 딸을 잃은 슈전조차도 만나보지도 못한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 뉴얼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늘 행복한 표정이었으며 어두운 기억은 은폐한 채 희망 가득 채창조된 기억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라오서는 베이징 소시민들의 삶 외에 주로 베이징 후통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베이징 하층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진실되고 사실적으로 그렸다. 린하이인은 『城南舊事』를 통하여 중산층의 시각에서 라오서와는 차별화된 베이징인들의 평범한 일상과 삶을 그려냈으며 아울러 중산층 시민의 시각에서 주변의 하층민의 삶에도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왕더웨이(王德威)는 「北京夢華錄」에서 타이완의 옛 베이징인들이 구축하고자 한 ‘기

역의 성'이 베이징 문화사와 문화 상상의 지속을 위해 중요한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타이완의 대표적 京味작가로 꼽히는 린하이인이 구축한 기억의 베이징성은 이러한 공백의 일부를 메워주는 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린하이인의 원작을 영화화한 우이궁의 영화 『城南舊事』 역시 섬세한 영상미학을 통하여 타이완과 대륙인들 모두가 그리워하는 20년대 당시 베이징 남쪽의 일상적 풍경과 문화, 삶을 ‘담담한 애수를 띤 깊은 그리움’을 담아 그려냈으며 원작과는 또 다른 예술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참 고 문 헌

-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파주: 열린 책들, 2008.
- 林海音, 『城南舊事』,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8.
- \_\_\_\_\_, 『林海音作品菁華集: 城南舊事』, 北京: 中國畫報出版社, 2010.
- \_\_\_\_\_, 『城南舊事』,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11.
- \_\_\_\_\_, 『在胡同裏長大』,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11.
- \_\_\_\_\_, 『兩地』, 北京: 北京出版社, 1988.
- 夏祖麗, 『從城南走來-林海音傳』,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3.
- 傅光明, 『林海音: 城南依稀夢尋』, 鄭州: 大象出版社, 2002.
- 舒乙, 傅光明 主編, 『林海音研究論文集』, 北京: 臺海出版社, 2001.
- \_\_\_\_\_, 『大愛無邊』, 桂林: 漓江出版社, 2004.
- 畢靜枝, 「論『城南舊事』的民俗學價值」, 『作家雜誌』, 2012. No1.
- 郝海洪, 「林海音“京味”敘事策略」, 『文化研究』, 2006. 8.
- 李玥陽, 「“老北京”與“新城南”: 京腔京韻再敘城南“新”事」, 2010年 第12期.
- 林崢, 「從『舊京瑣記』到『城南舊事』-兩代“遺/移民”的北京敘事」,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12年 第1期.
- 任蘭平, 「林海音與老舍之“京味兒”比較」, 『湖南工業職業技術學院學報』第6卷 4期,

2006年 12月.

陳陽春, 「電影『城南舊事』的敘事美學」, 『語文建設』2005年 第3期.

袁成亮, 「電影『城南舊事』背後鮮爲人知的故事」, 『党史博採』, 2009年 6月.

張祖群, 祖文靜, 「鄉土北京:『城南舊事』的老北京影像」, 『青島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30卷 第1期, 2014年 3月.

彭笑遠, 「『城南舊事』: 從小說到電影的“同”與“異”」, 『北京教育學院學報』第2卷 第4期, 2010年 8月.

高雪, 「淺析『城南舊事』小說與電影的文本區別」, 『戲劇之家』, 2011年 3月.

❖ ABSTRACT

A Study on Yingzi's Narration of Nostalgia for Peking  
– Based on Linhaiyin's Novel ChengnanJiushi and Wuyigong's Film of the  
Same Title

Kim, Sujin

Peking has peculiar features as capital city, and has gone through various transformations, with its name changed from Peking to Peiping to Peking. Even when it did not serve as a capital city, it still played an unrivaled role in cultural aspects.

Laoshe, a great writer of 'Peking flavour' literature, is famous for works full of cultural charms of Peking. In his works, which show the manners, norms, art, culture and optimistic life style of Peking, Peking culture is described as an extension of cultural traditions of Qiren. In addition, his critical view of reality is also expressed in the works.

Linhaiyin's literary works show ordinary hutongs she experienced in the 1920s in Chengnan, the southern part of Peking, and the quiet and simple life of warm-hearted people living there. Her vague memories of Peking, along with her nostalgia for the city, let her describe the city with recreated happy memories of it instead of the harsh critical view. Her works express the city in her recreated memory full of hope, with her dark memories of the city being glossed over.

As seen above, Laoshe realistically described the tragic and difficult life of low class people in hutongs of Peking as well as lower middle class people of the city. Meanwhile, in ChengnanJiushi, Linhaiyin expresses the daily routine and ordinary life of people in Peking from the perspective of middle class people. In addition, she showed the sympathetic view of middle class citizens towards their low-class neighbors. In Peking Menghualu, Wangdewei mentioned that the 'castle of memory' which old Peking people in Taiwan tried to establish fills an important gap for the continuity of Peking cultural history and cultural imagination. This indicates that the 'Peking castle of memories,' which Linhaiyin, a Taiwanese writer well known for 'Peking flavour,' has established plays a big role in filling part of such gap.

ChengnanJiushi, Wuyigong's film based on Linhaiyin's novel of the same title, also describes the daily sceneries and culture of the southern Peking in the 1920s,

which both Taiwanese and Chinese people miss, through sophisticated images with 'profound yearning tinted with calm sadness', accomplishing an artistic achievement different from that of the novel.

---

**Key Words**

베이징, 노스텔지어, 성남, 경미, 기억

Peking, nostalgia, the southern part of Peking, Peking flavour, memory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6일